

紅彩 分析을 통한 자가 면역질환에 관한 研究 -간질환 중심으로-

이순옥*

선교청대 학교

A Study on autoimmune diseases through Iridology

Lee, Sun-ok

Holy People University

ABSTRACT

While the effect of alternative therapy in the disease treatment and prevention has been scientifically verified, the western nations pay attention to the study of the alternative therapy because the western medicine admits its limit.

The prevention of Iridology and its preliminary diagnosis is meaningful in the aspect of the diagnosis and prevention of the autoimmune disease. If symptoms of the disease is measured by Iridology analyzer preliminarily, the treatment based on lower costs will be possible, and patients will be safer from the risk of complications in case of liver disease compared to the treatment after an attack of the disease.

Research was performed for 3 months from June 1 2009 to September 30 2009, and research subjects were total 230 people; 101 males and 129 females over aged 30~50 who resided in Seoul and Gyeonggi-do.

Research revealed that the passage of the hub and spoke, the coloration of liver and hereditary lesion of liver disease patients were higher than those of normal people. It shows that the passage phenomenon of hub and spoke, coloration and hereditary lesion appeared in the liver disease clients.

I. 서론

서양의학 또는 정통의학은 서양철학과 과학 문명의 발전에 그 바탕을 두고 분석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질병을 다루어 왔다. 하지만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석적인 사고방식은 시각을 좁혀 인체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을 어렵게 하였고 기계와 화학약품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의료비를 높이고 인체 부작용을 심화시켜 보다 나은 치유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아울러 오랜 역사를 거쳐 인간의 생명을 구해온 현대의학도 수많은 난치병과 불치병 앞에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다.

전통의학이 질병치료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학자 또는 생화학자 등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끊임없이 발전하여 왔다면, 보완 대체의학(CAM: Complementary & Alternative medicine)은 인간의 질병을 자연 치유능력에 맞추어 조율해 주고 복원시켜주는 의학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중 홍채학은 생명체의 유전적 경향과 체질, 질병에 대한 소인과 신경학적 반사 반응 및 자율신경계의 강약, 면역기능의 정도,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의 패턴 등을 관찰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진단영역이다¹⁾. 또한 눈을 보면 모든 생명체의 유전적 약점과 신경계의 강약을 알 수 있다는 것이 홍채학의 핵심이다²⁾. 홍채 진단은 환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며 방법이 간단한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눈 사진을 찍어 확대 관찰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가의 의료기기가 필요하지 않아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홍채학은 조기 진단과 예방 의학적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 가령 홍채색이 밝은 사람은 열성체질로 고혈압과 심장병을 주의해야 한다거나 어두운 사람은 냉한체질로 혈액순환이 나쁘고 위·장·간이 약하다는 식이다¹⁾.

홍채 진단으로 모든 병력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대로 홍채진단은 질병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통해 복잡하고 경제적 부담이 큰 일반적 의학과 치유를 대신하는 보완 대체의학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홍채학의 예방 및 사전 진단기능은 자가면역질환에 관한 진단 및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특히 자가면역질환 중에 하나인 간질환은 국내 사망 원인 중 여섯 번째 차지하며 특히 40대 남자에서 사망률은 암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질병이다. 간질환은 원인이 복잡적이며 급성질환과는 달리 환자역할 기간이 길고, 질병의 조절만 되고 완치가 어려워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되어 간질환 환자들의 꾸준한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간질환은 감염으로부터 간경변증 등 다양한 경과를 밟으면서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올바른 치료 및 관리에 대한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만성적이며 심각한 질병과정에서 어떠한 치료행위를 추구하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³⁾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질환과 홍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하며, 이에 따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표집 방법